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비교·분석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성춘*

¹용인대학교 군사학과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n Student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Focus on the students of military science established college and those of military science non-established college-

Lee, Sung Choon^{1*}

¹Yong In University, Dept. of Military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일반대학에서 군사학과 설치 학교의 대학생들과 미설치 학교의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비교분석하여 안보전략과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인식(평균 4.33점)하였다.

군사학과 설치 여부와 군사학과 개설에 따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수준(3.44점)으로 조사되었고, 지역, 성별, 병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운용 인지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군사학과 학생들의 학습내용, 혜택과 향후 진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으로의 양질의 우수인력 획득은 물론, 일반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안보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a security strategy and security education program by analyzing the security awareness of universities with and without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The results of university student's security awareness revealed a normal level of recognition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 and gender. The recognition of stability of current Korean national security is normally low on average, which suggests that students feel anxiety towards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the North Korea provocation influence on national security has been recognized highly (score of 4.33 on average).

The national securi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case of whether establishing a Dept. of Military Science or not showed a normal level, which revealed a score of 3.44, and differed according to region, gender and recruitment, and had a relationship with the recognition of Dept. of Military Science management. Therefore,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security authorities is in strong demand to improve the security awareness of general university students, and have an influx of great human resources by advertising the educational contents, advantages and future career of Dept. of Military Science students.

Key Words : The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and Art, university student, the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cadet, military officer,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n sympathizers

*Corresponding Author : Lee, Sung Choon(Yong In Univ.)

Tel: +82-10-5078-1959 email: mire2050@naver.com

Received June 27, 2014

Revised (1st July 4, 2014, 2nd July 9, 2014)

Accepted July 10, 2014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우리 국민의 안보에 대한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 및 대학생들은 나 자신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6.25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현실을 체험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보의식 또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민족통일의 국가적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재조명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 대학 내에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등 군 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된 추세인 바, 과연 이런 현상이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대학생들의 안보의식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군사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영남대, 서경대, 용인대)의 학생들과 미개설 대학교(명지대, 선문대, 한양대)의 학생들을 대학별로 각각 100명씩 총 60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년 3월 4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약 2주간 이루어졌다. 배포된 6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517부였고,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506부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χ^2 검증), t검정(t-test)등을 실시하였다.

2.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성향

2.1 안보의식의 개념

안보는 라틴어의 'securita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e'는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 또는 어떤 것에서 풀려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uritas'의 어원인 'cura'는 공포, 불안, 근심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1]. 모든 국가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을 추구하고, 국가이익은 국가

생존을 위한 최우선적 이익으로 국민보호와 국민복지 향상, 국가의 힘의 증대를 의미한다.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다 [2].

안보의식은 안보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보의식의 개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인 것이다. 한국의 안보의식은 국력, 국제적 위상, 지정학적 위치, 국내 정치적 환경, 국가안보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안보 패러다임은 “균형 잡힌 통합안보”로 설정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여기서 균형이라는 것은 국내와 국제안보, 군사와 비군사 안보, 현실주의적 안보와 이상주의적 안보, 전략적 안보와 이상적 평화 간의 유연한 효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안보대상 지역으로서의 동북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편중을 개선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은 안보요소, 안보 관련 제도와 기구, 안보정책, 이념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통합된 전략과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3].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안보는 개인이나 국가의 생명과 재산 등에 위해가 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국가의 능력과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제반 활동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안위의 확보를 목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지지하고, 안보정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와 자세이며 국가안보에 대해 갖는 국민들의 의식이다.

2.2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안보 의식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특징은 급변하는 가치체계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질적 하위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문화의 가치인식과 보다 큰 공통문화에로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의 가치규범의 부재와 가치기준의 변화 또한 대학생들의 가치관 정립 및 가치관 발달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가치관 자체가 혼란되고 무규범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시대적 흐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부모세대와 기성세대처럼 엄격히 통제된 사회가 아닌 자유주의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 태어나서 감각적·쾌락적·물질주의적 삶을 즐기며 정신적·내면적 가치 추구는 도외시하기 때문에, 점차 정신적으로 빈곤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지수

를 깎아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4].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대학생들과 기성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는 전통세대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친인간애를 가졌다면 대학생들은 합리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5]. 기성세대가 인간적인 관계 중심으로 가치관이 흘러갔다면 신세대인 대학생들은 인간관계나 과업수행에서 인정보다는 합리적 원인에 따라 행동한다. 연줄보다는 원칙에 따라, 인정이나 우정, 애정관계까지 합리적인 이들은 밥값을 각각 내는 문화에 익숙하고, 기성세대의 인정이나 미풍양속을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여긴다.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 어른들의 말이나, 감정적이고, 강압적이며, 권위주의식으로 통치하는 윗사람에게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5]. 또한 신세대인 대학생들은 기성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많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세대 대학생들은 자신들 역시 그러한 지배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일 뿐 그 체제를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식은 결국 기성세대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으로 나타나게 된다[6].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공동체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젊은 세대인 한국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해 많은 기성세대들은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는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의식 세계를 지니고 있다[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충성심 고양, 적개심 고취, 주입식 안보교육이 아니라 안보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안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는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교육에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3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실태

대학생들의 사회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기관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부 졸업 후 사회 진출비용 중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총 1/3가량이 진출하고 있고, 각 계열 전 분야에서 비슷한 비율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신세대들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추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느냐는 향후 국가안보정책의 이해당사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냉전기의 군사적 위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매우 다양화 되었고 위협의 주체도 특정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근 대학생들 중심으로 신세대인 장병들의 안보의식 조사에서 안보 개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대 대학생 장병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 및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안보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대다수가 TV 매체를 듣고 있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 상황으로는 국내 경제 불안과 정치 불안, 국민 안보의식 해이를 듣고 있다[9]. 연세대 최평길 명예교수 연구팀이 1977년부터 5회에 걸쳐 30년간 전국 대학생 1500~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세대인 대학생들의 안보 의식의 변화는 1997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북한의 남침' 위협이 65.5% 이었던 것에 반해, 2005년 이들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경제침체, 사회 빈부격차와 물가고'로 조사되었으며, '북한의 남침' 위협은 2005년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4.7%로 나타났다. 한편 1987년에는 대학생의 17.4%가, 1993년에는 2.1%가 북한의 남침을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20여년 만에 의식의 현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009년 4월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안보의식에 관한 설문에서 대학생들의 약 17.5%가 투철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2.5%는 별로 투철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협의 대상을 북한으로 특정하여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여부 질문에서는 35%가 도발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는 도발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국가 위난 시 참여의사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학생들의 62.5%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응답은 3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출처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학생들의 90%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습득하였고 응답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대학생들의 적대감이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 현저 줄어들었다. 1977년 조사에서 당시 대학생 61.3%가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꼽았으나, 2005년 대학생들은 5.9%만이 북한을 싫어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일본(65.3%)과 미국(26.4%)보다 크게 낮은 비율이다[10].

기성세대들은 스스로 안보의식이 강화되기를 원하고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보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나 국가적 위협이 인지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보교육은 안보의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의 안보 의식 함양과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시된다.

3. 군사학과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의 안보의식 비교·분석

3.1 측정도구 및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1.1 측정도구

안보개념은 최근에 도입되어 포괄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하여 측정할 경우 변수간의 모호성이 존재한다[11]. 이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항목의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설문하였고, 변수간의 관계보다는 각 문항의 빈도를 분석하여 안보의식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있다.

김병조는 변수를 구분하지 않고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국방 및 군에 대한 인식,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등 6가지 안보의식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12]. 이옥연은 연구에서 전반적인 안보상황, 국가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판단, 국가안보의 위협요소,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남북한 군사력 비교 및 국방비 증대 필요성, 남북한 통일문제 및 주한미군 문제 등을 사용하였다[13]. 박균열은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논의하면서 안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

식, 북한에 대한 인식,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안보위협 극복 및 안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4]. 김종영·황중호·이규용도 안보의식 실태를 분석하면서 안보에 대한 인식,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임현호는 전남·광주지역 초등교육 현장의 통일문제 관련 의식 조사에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핵보유에 대한 판단력,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생각,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새터민(탈북자)에 대한 감정 등을 사용하였다[15].

이에 본 연구는 군사학과 개설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국가안보의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23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현재 대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의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우리나라 안보 안정화 수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따른 안보의 위협, 국내 총북세력의 위협, 국가안보위협 요소 등을 측정지표로 선정하였고 둘째, 군사학과 운영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군사학과 설치 및 운영 인지도, 군사학과와 군 관련 연계성 정도, 타 학교 군사학과 개설 운영 인지도,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경험 등을 설문문항으로 채택하였다. 셋째, 군사학과 설치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과 관련해서는 군사학과로 인한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정도, 군사학과가 없는 학교와 비교시 안보의식 수준, 군사학과로 인한 안보의식 향상 등을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Likert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5점으로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1.2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응답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군사학과 설치대학과 미 설치대학의 지역적 비중은 수도권 대학은 각각 194명과 159명이며 지방 대학은 각각 79명과 74명이며, 성별 비중은 군사학과 설치 대학은 남녀 비율이 184명과 89명이며, 미 설치대학은 각각 172명과 6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병역은 설치대학은 군필은 66명이며 미필/면제는 118명이며, 미설치대학은 각각 61명과 111명으로 분포하고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Responder's Normal Option

Classification	Universities with Military Science		Universities without Military Science		Total		
	N	(%)	N	(%)	N	(%)	
Region	Capital	194	(71.1)	159	(68.2)	353	(69.8)
	Local	79	(28.9)	74	(31.8)	153	(30.2)
Gender	Male	184	(67.4)	172	(73.8)	356	(70.4)
	Female	89	(32.6)	61	(26.2)	150	(29.6)
d2	Recruited	66	(35.9)	61	(35.5)	127	(35.7)
	Not Recruited /Exempted	118	(64.1)	111	(64.5)	229	(64.3)
	total	184	(100.0)	172	(100.0)	356	(100.0)
d3	age of 17-19	1	(.4)	9	(3.9)	10	(2.0)
	age of 20-24	230	(84.2)	187	(80.3)	417	(82.4)
	age of 25-29	37	(13.6)	37	(15.9)	74	(14.6)
	age over 30	5	(1.8)	0	(.0)	5	(1.0)
d4	Humanity Course	56	(20.5)	50	(21.5)	106	(20.9)
	Science Track	46	(16.8)	35	(15.0)	81	(16.0)
	Engineering	73	(26.7)	48	(20.6)	121	(23.9)
	Social Science	54	(19.8)	75	(32.2)	129	(25.5)
	Art and Physical Education	36	(13.2)	24	(10.3)	60	(11.9)
	Others	8	(2.9)	1	(.4)	9	(1.8)
Total	273	(100.0)	233	(100.0)	506	(100.0)	

3.2 국가 안보 의식에 대한 인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3.7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지역($p<.001$), 성별($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과 남학생의 안보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별로 살펴보면,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모두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역시 수도권과 남학생의 안보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성장환경 차이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도 안보의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군 복무를 경험하였거나 해야 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안보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가 안정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2.90점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지역($p<.01$), 성별($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학생과 남학생이 우리나라 안보가 안정된 편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치 대학에서는 지역, 성별, 병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설치 대학에서는 지역($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우리나라 안보를 안정된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현영(200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는 평균 4.33점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특히, 군사학과 설치여부($p<.05$)와 성별($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설치 대학 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자극했다는 전상조(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안보의식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북세력의 위협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3.9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설치구분($p<.05$), 지역($p<.001$), 성별($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 수도권 학생 및 남학생이 중북세력의 위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군사학과 설치 대학에서는 성별($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이 중북세력 위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에서는 지역($p<.001$)과 성별($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학생들과 남학생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에 경험한 연평도 사건 등을 통해 수도권이 위치상으로 북한 도발의 위험지역에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안보분야는 타 분야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는 평균 3.81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지역(p<.01)과 성별(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국가안보 우선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군사학과 설치 대학에서는 성별(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들의 국가안보 우선 인식이 높았다.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에서는 지역(p<.05)과 성별(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국가안보분야가 타 분야보다 우선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성세대에 비해 현대사회의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보화 세대인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풍족함 속에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탈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대

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Table 2 참조).

우리나라의 안보위협 요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군사적·정치적 대립’이 6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한민국 내의 중복세력’이 28.1%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차이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수도권(63.7%)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들(60.8%)에 비하여 ‘북한과의 군사적·정치적 대립’이 우리나라 안보의 위협요소라는 인식 수준이 강하였다(p<.05). 이를 통해 북한과 근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의 경우 최근 북한에 의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많은 위협을 경험하면서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정적 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Awareness Level about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High Awareness		Safety of Korean Security		North Korea Provocation		Awareness to Danger of NK Sympathizer		National Security Priority	
		M	(SD)	M	(SD)	M	(SD)	M	(SD)	M	(SD)
Classification of establishment	Established	3.71	(.93)	2.84	(.99)	4.40	(.73)	3.61	(1.10)	3.85	(.90)
	Non-Established	3.79	(.97)	2.97	(1.03)	4.26	(.77)	3.82	(1.05)	3.77	(1.01)
	t	-.929		-1.450		2.125*		-2.168*		.919	
Region	Capital	3.89	(.93)	2.99	(1.03)	4.33	(.78)	3.86	(1.03)	3.89	(.93)
	Local	3.41	(.91)	2.68	(.92)	4.33	(.69)	3.35	(1.11)	3.63	(.97)
	t	5.432***		3.188**		.013		4.976***		2.870**	
Gender	Male	3.97	(.90)	2.96	(1.05)	4.38	(.77)	3.92	(1.01)	3.94	(.97)
	Female	3.21	(.84)	2.75	(.89)	4.21	(.68)	3.21	(1.07)	3.49	(.82)
	t	8.762***		2.058*		2.358*		7.096***		4.985***	
Recruitment	Recruited	3.87	(.89)	3.04	(1.06)	4.37	(.73)	3.86	(1.00)	3.87	(.97)
	Non-Recruited/Exempted	4.02	(.90)	2.91	(1.05)	4.39	(.80)	3.95	(1.02)	3.98	(.97)
	t	-1.567		1.126		-.268		-.835		-1.010	
	Subtotal	3.97	(.90)	2.96	(1.05)	4.38	(.77)	3.92	(1.01)	3.94	(.97)
	Total	3.74	(.95)	2.90	(1.01)	4.33	(.75)	3.71	(1.08)	3.81	(.95)
Established University	Capital	3.80	(.91)	2.87	(.99)	4.41	(.74)	3.66	(1.08)	3.90	(.90)
	Local	3.47	(.95)	2.75	(.98)	4.37	(.68)	3.48	(1.14)	3.71	(.89)
	t	2.741**		.942		.466		1.259		1.616	
Gender	Male	3.96	(.87)	2.90	(1.05)	4.46	(.75)	3.93	(.98)	4.01	(.91)
	Female	3.19	(.82)	2.71	(.83)	4.28	(.66)	2.96	(1.03)	3.51	(.79)
	t	6.912***		1.484		1.882		7.561***		4.508***	
Recruitment	Recruited	3.92	(.85)	2.97	(1.08)	4.41	(.78)	3.88	(1.00)	3.98	(.95)
	Non-Recruited/Exempted	3.97	(.89)	2.86	(1.04)	4.48	(.74)	3.96	(.97)	4.03	(.88)
	t	-.374		.702		-.638		-.522		1.291	
Non-Established University	Capital	3.99	(.94)	3.13	(1.07)	4.24	(.81)	4.10	(.92)	3.87	(.98)
	Local	3.34	(.86)	2.61	(.86)	4.30	(.70)	3.22	(1.06)	3.54	(1.04)
	t	5.066***		3.701***		-.535		6.485***		2.377*	
Gender	Male	3.98	(.93)	3.02	(1.05)	4.31	(.79)	3.91	(1.05)	3.87	(1.04)
	Female	3.25	(.87)	2.82	(.97)	4.11	(.71)	3.57	(1.02)	3.48	(.87)
	t	5.362***		1.286		1.686		2.143*		2.677**	
Recruitment	Recruited	3.80	(.95)	3.11	(1.03)	4.33	(.68)	3.84	(1.00)	3.75	(.98)
	Non-Recruited/Exempted	4.07	(.91)	2.96	(1.06)	4.30	(.85)	3.95	(1.08)	3.94	(1.06)
	t	-1.826		.900		.242		-.656		-1.109	

*p<.05, **p<.01, ***p<.001

[Table 3] Korea's Most Dangerous Threat to National Security

Classification		Military/Political Conflict/Trouble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Sympathizer in Korea		Expansion policy of China		Korea-US Alliance		Others		Total	X ²		
		N	(%)	N	(%)	N	(%)	N	(%)	N	(%)				
		Establishment	Established	181	(66.3)	14	(5.1)	72	(26.4)	3	(1.1)	1		(.4)	2
	Non-Established	137	(58.8)	16	(6.9)	70	(30.0)	2	(.9)	8	(3.4)	0	(.0)	233	(100.0)
Region	Capital	225	(63.7)	18	(5.1)	104	(29.5)	2	(.6)	4	(1.1)	0	(.0)	353	(100.0)
	Local	93	(60.8)	12	(7.8)	38	(24.8)	3	(2.0)	5	(3.3)	2	(1.3)	153	(100.0)
Gender	Male	224	(62.9)	19	(5.3)	101	(28.4)	4	(1.1)	7	(2.0)	1	(.3)	356	(100.0)
	Female	94	(62.7)	11	(7.3)	41	(27.3)	1	(.7)	2	(1.3)	1	(.7)	150	(100.0)
Recruitment	Recruited	86	(67.7)	2	(1.6)	32	(25.2)	2	(1.6)	4	(3.1)	1	(.8)	127	(100.0)
	Non-Recruited	138	(60.3)	17	(7.4)	69	(30.1)	2	(.9)	3	(1.3)	0	(.0)	229	(100.0)
	Subtotal	224	(62.9)	19	(5.3)	101	(28.4)	4	(1.1)	7	(2.0)	1	(.3)	356	(100.0)
	Total	318	(62.8)	30	(5.9)	142	(28.1)	5	(1.0)	9	(1.8)	2	(.4)	506	(100.0)

*p<.05

3.3 군사학과 학생을 보면서 군과의 연계 정도

군사학과 학생들을 보면서 군과 관련된 사항의 연계 정도에 대하여는 평균 3.1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차이 분석 결과 지역(p<.01), 성별(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생과 남학생이 군사학과 학생들을 보면서 군과 관련된 사항의 연계 정도 인식이 높았다. 군사학과 설치 대학에서는 지역(p<.05), 성별(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보다는 수도권지역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군과 관련한 사항의 연계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에서는 지역(p<.01)

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 대학생들보다 수도권 대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군과 관련한 사항의 연계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남학생들이 군사학과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군사학과 개설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설립 취지와 목적,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Table 4 참조).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하여 평균 3.1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성별

[Table 4] Connection to Military through The Observation of Military Science

		Connection to Military	
		M	(SD)
Establishment (n=253)	Established	3.18	(.97)
	Non-Established	2.90	(.90)
	t		1.880
Region	Capital	3.27	(.94)
	Local	2.85	(.95)
	t		3.398**
Gender	Male	3.22	(.99)
	Female	2.97	(.90)
	t		2.006*
Recruitment	Recruited	3.13	(.95)
	Non-Recruited/Exempted	3.30	(1.02)
	t		-1.079
	Subtotal	3.22	(.99)
	Total	3.13	(.96)
Region	Capital	3.31	(.97)
	Local	2.96	(.93)
	t		2.532*
Established University (n=202)	Male	3.33	(.96)
	Female	2.95	(.94)
	t		2.776**
Recruitment	Recruited	3.19	(.99)
	Non-Recruited/Exempted	3.46	(.92)
	t		-1.603
Region	Capital	3.14	(.80)
	Local	2.33	(.90)
	t		3.164**
Non- Established University (n=51)	Male	2.84	(.99)
	Female	3.07	(.62)
	t		-.824
Recruitment	Recruited	2.94	(.80)
	Non-Recruited/Exempted	2.74	(1.15)
	t		.635

*p<.05, **p<.01

($p<.001$)과 병역($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과 미필/면제자가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학과 설치 대학에서는 지역($p<.05$)과 병역($p<.0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생과 미필/면제자가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에서는 성별($p<.001$) 및 병역($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과 미필/면제자가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군사학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군사학과의 정보에 보다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 된다(표 5 참조).

특히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에서 생업수단으로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미

래 안정적 직업보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의 장래 희망이 있어서가 20.3%,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생업수단으로 군인을 생각해 본 경우는 16.3%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지역($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군 관련사항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주제는 국가안보가 60.0%로 가장 많았고 군의 군기가 17.9%, 국방예산이 1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과 대적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들의 발발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Experience of Thinking Military as A Vocation

Classification		Experience of Thinking Military as A Vocation	
		M	(SD)
Establishment	Established	3.19	(1.12)
	Non-Established	3.04	(1.34)
		t	1.315
Region	Capital	3.19	(1.24)
	Local	2.97	(1.19)
		t	1.852
Gender	Male	3.26	(1.21)
	Female	2.80	(1.21)
		t	3.863***
Recruitment	Recruited	2.86	(1.19)
	Non-Recruited/Exempted	3.48	(1.17)
		t	-4.743***
		Subtotal	3.26 (1.21)
		Total	3.12 (1.23)
Region	Capital	3.30	(1.09)
	Local	2.91	(1.16)
		t	2.612*
Established University	Male	3.24	(1.16)
	Female	3.07	(1.04)
		t	1.222
Recruitment	Recruited	2.79	(1.22)
	Non-Recruited/Exempted	3.50	(1.04)
		t	-4.171***
Region	Capital	3.05	(1.39)
	Local	3.03	(1.23)
		t	.123
Non-Established University	Male	3.27	(1.27)
	Female	2.41	(1.33)
		t	4.473***
Recruitment	Recruitment	2.93	(1.17)
	Non-Recruited/Exempted	3.45	(1.29)
		t	-2.592*

* $p<.05$, *** $p<.001$

[Table 6] Experience of Thinking Military as A Vocation - Non-Established University

Classification		Through Policy and Student of Military Science		For Future Vocation		One's Dream		To Sacrifice to Nation and People		Others		Total		X ²
		N	(%)	N	(%)	N	(%)	N	(%)	N	(%)	N	(%)	
Region	Capital	13	(12.6)	41	(39.8)	24	(23.3)	22	(21.4)	3	(2.9)	103	(100.0)	12.524*
	Local	4	(8.0)	34	(68.0)	7	(14.0)	3	(6.0)	2	(4.0)	50	(100.0)	
Gender	Male	15	(11.7)	58	(45.3)	28	(21.9)	22	(17.2)	5	(3.9)	128	(100.0)	4.784
	Female	2	(8.0)	17	(68.0)	3	(12.0)	3	(12.0)	0	(0.0)	25	(100.0)	
Recruitment	Recruited	6	(15.0)	21	(52.5)	5	(12.5)	6	(15.0)	2	(5.0)	40	(100.0)	3.876
	Non-Recruited/Exempted	9	(10.2)	37	(42.0)	23	(26.1)	16	(18.2)	3	(3.4)	88	(100.0)	
	Subtotal	15	(11.7)	58	(45.3)	28	(21.9)	22	(17.2)	5	(3.9)	128	(100.0)	
Total		17	(11.1)	75	(49.0)	31	(20.3)	25	(16.3)	5	(3.3)	153	(100.0)	

*p<.05

[Table 7] Topic - Experience of Thinking Military Affairs

Classification		National Security		Military Discipline		National Defense Budget		Weapons System		Alliance with Foreign Country		Total		X ²
		N	(%)	N	(%)	N	(%)	N	(%)	N	(%)	N	(%)	
Establishment	Established	97	(63.8)	24	(15.8)	16	(10.5)	12	(7.9)	3	(2.0)	152	(100.0)	5.789
	Non-Established	17	(44.7)	10	(26.3)	4	(10.5)	6	(15.8)	1	(2.6)	38	(100.0)	
Region	Capital	80	(60.6)	25	(18.9)	13	(9.8)	10	(7.6)	3	(2.3)	132	(100.0)	3.881
	Local	34	(58.6)	9	(15.5)	7	(12.1)	8	(13.8)	0	(.0)	58	(100.0)	
Gender	Male	70	(55.6)	27	(21.4)	15	(11.9)	11	(8.7)	3	(2.4)	126	(100.0)	4.870
	Female	44	(68.8)	7	(10.9)	5	(7.8)	7	(10.9)	1	(1.6)	64	(100.0)	
Recruitment	Recruited	28	(47.5)	18	(30.5)	7	(11.9)	5	(8.5)	1	(1.7)	59	(100.0)	5.806
	Non-Recruited	42	(62.7)	9	(13.4)	8	(11.9)	6	(9.0)	2	(3.0)	67	(100.0)	
	Subtotal	70	(55.6)	27	(21.4)	15	(11.9)	11	(8.7)	3	(2.4)	126	(100.0)	
Total		114	(60.0)	34	(17.9)	20	(10.5)	18	(9.5)	4	(2.1)	190	(100.0)	

3.4 군사학과 설치 여부에 따른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비교

군사학과 설치 대학 학생의 안보의식에 대하여 살펴 보면, ‘군사학과 학생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평균 3.2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차이분석 결과, 지역(p<.001), 성별(p<.001), 병역(p<.05)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생과 남학생 및 미필/면제자가 군사학과 학생들을 보며 안보현실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군사학과 활동이 귀하에게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이었습니까?’에 대하여 평균 3.4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차이 분석 결과, 지역(p<.01), 성별(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생이 지방 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군사학과 활동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군사학과가 없는 타 대학교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귀하는 군이나 안보의식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3.44점으로 군사학과 과로 인한 안보현실 생각(3.23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이분석 결과, 지역(p<.01), 성별(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대학생이 지방 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이 군이나 안보의식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학과로 인한 안보의식 향상은 수도권이 3.47점, 지방이 3.04점으로 군사학과 운용관련 정보접촉이 유리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군사학과 운용인지도가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학과 미설치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군사학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군사학과가 귀하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면 귀하의 안보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3.55점으로 보통

[Table 8]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ept. of Military Science

Classification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Through Dept. of Military Science		Effect of Dept. of Military Science		Chance of Thinking National Security Compared to Non-Established University		Increase of National Security Awareness due to Dept. of Military Science	
		M	(SD)	M	(SD)	M	(SD)	M	(SD)
Region	Capital	3.41	(.91)	3.51	(.83)	3.55	(.90)	3.47	(.89)
	Local	2.80	(.95)	3.22	(.75)	3.18	(.93)	3.04	(.81)
	t	4.942***		2.682**		3.045**		3.756***	
Gender	Male	3.43	(.90)	3.51	(.82)	3.55	(.89)	3.44	(.91)
	Female	2.81	(.96)	3.24	(.78)	3.21	(.95)	3.16	(.82)
	t	5.273***		2.627**		2.854**		2.482*	
Recruitment	Recruited	3.23	(.99)	3.36	(.76)	3.45	(.84)	3.20	(.95)
	Non-Recruited/Exempted	3.55	(.82)	3.59	(.85)	3.60	(.92)	3.58	(.86)
	t	-2.377*		-1.826		-1.074		-2.762**	
	Subtotal	3.43	(.90)	3.51	(.82)	3.55	(.89)	3.44	(.91)
	Total	3.23	(.96)	3.42	(.82)	3.44	(.92)	3.35	(.89)

*p<.05, **p<.01, ***p<.001

[Table 9] Awareness of Dept. of Military Science to Students of Non-Established University

Classification		Positive Effect of Opening Dept. of Military Science		Agree to Open Dept. of Military Science	
		M	(SD)	M	(SD)
Region	Capital	3.66	(.81)	3.60	(.87)
	Local	3.30	(.93)	3.47	(.95)
	t	3.033**		.990	
Gender	Male	3.57	(.93)	3.52	(.96)
	Female	3.48	(.65)	3.66	(.68)
	t	.731		-.994	
Recruitment	Recruited	3.51	(.89)	3.54	(.91)
	Non-Recruited/Exempted	3.60	(.96)	3.51	(.99)
	t	-.642		.170	
	Subtotal	3.57	(.93)	3.52	(.96)
	Total	3.55	(.87)	3.56	(.89)

**p<.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 결과, 지역(p<.01)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수도권 학생(M=3.66)이 지방대 학생(M=3.30)에 비하여 군사학과 설치 시 안보의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귀하의 학교에 군사학과 개설이 된다면 이를 찬성하시겠습니까?’에 대하여 평균 3.5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지역, 성별, 병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군사학과 개설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군사학과 개설은 ‘장교’라는 호국간성으로 근무한다는 자긍심 고취와 졸업 후 취업난 해소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는 논리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설치 대학의 대학생들 안보의식과 미설치 대학의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전략과 안보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분석한 결과, 본인의 안보의식에 대한 의견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인식(평균 4.33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학과 설치여부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군사학과 설치대학 학생과 남학생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평균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설치여부, 지역,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타 분야보다 국가안보분야의 우선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우리나라의 안보위협 요소의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의 군사적·정치적 대립'이 62.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국가 안보의식을 종합한 결과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높게 인식하였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보통수준이었고, 현재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인식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16]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물질주의 가치와 상당한 기간 동안 평화기간이 계속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옥에 의하면 탈물질주의 가치가 우리나라 안보의식 전반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17]. 따라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먼저 안보실상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국가정보의 기밀성, 폐쇄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과감한 기회가 공유되어야 하며, 군부대 개방행사 확대 등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교와 MOU 체결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차원에서는 국민윤리의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작금의 안보·정치상황, 그리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해야 할 정신덕목 등이 학계와 유기적으로 협조된 가운데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한 공식 비공식 교육 체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가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치 갈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군사학과가 군과 관련한 사항이 연계된 정도에 대한 인식은 군사학과 설치 대학의 경우 보통수준이었으나, 미설치 대학교 대학생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하여 평

균 3.1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군 관련사항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주제는 국가안보가 60.0%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사학과와 취지와 설립목적이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학당국이 군사학과를 개설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정보전달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군사학과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군사학과 설치 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안보의식을 분석한 결과, 군사학과 설치 대학 학생의 안보의식과 군사학과 개설이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수준으로 이는 군사학과 학생과 군을 연계하는 정도나 군사학과 설치여부에 따른 안보의식 비교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그래도 미설치 학교보다 군사학과 운용 학교에서 군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분석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안보당국 차원에서 추진할 정책적 대안은 우선 많은 문제들이 군사학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육군이 체계적으로 연합하여 군사학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해당학교에서는 군사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일반학과 학생과 같이 자기 존재감과 자아의 정체성 형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직업장교와 군사전문가로 성장·발전하고, 장기복무 선발을 위해서도 군사학과 학생들의 지도와 잠재역량개발이 중요하므로 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 즉, 사관학교와 교류확대, 안보학술세미나 활성화, 외국군부대 방문, 장교인성교육과 교내 융·복합 과목 상호교육 등 전인적 통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사회변화에 맞춰 육군 장교로 우수 전문인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잠재적인 장교복무 희망자의 지원을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군 복무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공직이자 전문 직업으로써 안정된 처우가 보장된 가운데 장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Jae Myung Ko, Un Gi Yeo, Hong Yeop Lee, Gang Jung, Dong Man Han (2003), Theory and Reality of Multilateral Security Policy, Seoul : Seomundang.
- [2] Keun Suk Lee(2004), Change of Security Circumstance of Korea Peninsula and Direction of Developing National Security Policy,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s Degree Report.
- [3] Jong Young Kim · Jong Ho Hwang · Woong Gyu Lee(2008). Option for Citizen Security Awareness, Strategy Forum 9, 214-243.
Mark M. Lowenthal(2008), National Information : Secret to Policy, (Translated by Gye Dong Kim), Seoul : Myungin.
- [4] Yoon Sun Oh(2010), Diagnose of Teenager and Treatment of Abnormal Behavior, Seoul : YeaYoung B & P.
- [5] Keum Man Lee (2000), The Value of N Generation and Method of Educating Faith, Catholic Idea, Korea Catholic Organization.
- [6] In Ho Ok(2004), Research of Improvement of Military Ment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 Degree Report.
- [7] Kang Young Lee(2009), Research of Influence of Patriotic Sense to Military Life, 11st 2009 Prize Winner in Academic Report, Patriotic Academic Reports.
- [8]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2009 University Students statistical data, Educational statistical service. <http://cesi.kedi.re.kr/>
- [9] Sang Yong Sim · Sang Bok Lee(2006), Development of Mental Education According to Change of Security Awareness.
- [10] The Dong-A Daily News, 2006. 7. 13, feature articles
- [11] Sang Jo Jeon (2014), Research of University Student's Security Awareness and Influencing Factor, Doctor's degree Treatise of GyeMyung University.
- [12] Byung Jo Kim(1994). Analysis of Citizen's National Security Awareness according to new security concept, National Security Research, 37, 31-60.
- [13] Ok Yeon Lee (2004). Discussion about Gender Difference toward Security Awareness. The College of National Security Dept. of Security Problem, National Security Research, 47(2), 189-222.
- [14] Gyun Yeol Park (2003) Study of Student's Security Awareness, National Security Research, 51th Book 3, The College of National Security Dept. of Security Problem.
- [15] Hyun Mo Im(2011), Research of Awareness of GwangJu and JeonNam Region's Primary Education of Reunification Problem, Korea's and North East Asia's collection of treatises , 60, 129-151.
- [16] Soo Young Eo(1997), Comparison Research of Life and Change of Value and Politics of Korea, Japan, USA, Mexico, Seoul : Ihwa Woman University.
- [17] Wook Kim(2009), Change of Political Culture and Value disturbance : Focused on Post-Materialism, 21st Century Politic Academy19, (3), 97-120.

이 성 춘(Lee-Sung Choon)

[정회원]



- 2004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1년 2월 : 선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

통일/국방정책, 군사교육